

제1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중국 소주(Suzhou)에서 성황리에 개최

제1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중국의 소주(Suzhou)에 위치한 Suzhou Bamboo Grove Hotel에서 5월 18일(일)~20일(화)에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건강증진을 주제로 Workshop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전리방사선에 대한 주제로 3개국에서 한명씩 Keynote address를 발표하였다. 또한 오전과 오후에는 Free Communication을 3 parallel로 34개의 연제를 가지고 진행

하였으며 포스터 발표(54연제)가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Occupational Stress를 주제로 Symposium을 가졌으며 Closing Ceremony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일중 학술집담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수 회장을 비롯해 8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노동과학연구소의 Kazutaka KOGI 교수 등 46명이, 주최 측인 중국에서는 70명 등 총 19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쓰촨성(四川) 지진 피해자를 위한 모금



5월 18일(일)~20일(화), 중국의 소주(Suzhou)에서 열린 제19차 중한일 산업보건 학술집담회기간 중에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자를 위한 묵념과 모금행사를 가졌다.

집담회 참가자들은 모두 동참하였는데 최



병수 회장을 비롯해 80명의 한국 참가자도 모금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19일에는 모금액(약 만 천 위안과 한국 원화 수 만원 및 미화 약 100달러)을 소주적십자사에 직접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권종대 부장 등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최종 합격

권종대 부장(충북센타), 신재우 과장(안산센타), 조형기 과장(대전센타) 등 협회 직원 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 84회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인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이다.